

# 제주도에서 열린 한마음혈액원 돌잔치



**5월 22일은** 한마음혈액원이 개원한지 일년이 되는 날, 한마디로 '돌'이다. 태어나서 돌이 된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크듯이 1주년이 된 한마음혈액원도 개원당시보다 인원과 규모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돌을 맞은 아기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돌잔치' 이듯 1주년을 맞은 한마음혈액원도 스스로 자축하며 '돌잔치' 를 제주도에서 가졌다. 식구 모두가 참가하는 '돌잔치' 였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혈액 공급으로 몇 명은 남아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어야 했다.

8시 50분, 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주도로 출발했다. 떠나는 설렘으로 도심을 벗어나는 버스 안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 들쭉했다. 한 시간 남짓 달린 버스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다길이 아닌 「안산고려병원」, 아침에 요청한 혈액, 비록 적은 수량이지만 외면할 수 없어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큰 차량으로 이곳 안산고려 병원까지 혈액공급을 나선 것이다.

바다로 가는 시간은 조금 지체되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듯 바다에 돌을 던지며 물수제비 뜨기를 하고 있다.(멀리서부터 김경희, 김명희, 박선미, 오원주 간호사)→





매마위가 아스라히 보이는 제부리해수욕장, 열심히 갯벌을 파고 있다.

'돌잔치'가 시작되었다. 익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강한 비트에 얹은 자세 '안무'가 곁들여지는 '관공버스' 분위기로 변신을 보였다.

영흥대교를 지나 음악을 싣고 달리는 버스는 송교리 매표소에 도착,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25km 길이의 바닷길을 달렸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 갯벌을 바라보며 달리는 기분은 흡사 바다를 걷는 기분이다. 최종 목적지는 제부도 제부리 해수욕장. 도착 시간은 점심시간을 까딱 넘긴 12시 30분경.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예약한 횡집으로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우르르 몰려갔다. 바다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어 '전망대회센터'인 횡집에서 한마음혈액원 1주년을 자축하는 건배소리와 함께 점심을 했다.

식사 후 왼쪽 편에 우뚝 솟은 매마위를 아스라이 바라보며 바지락을 캐기 위해 제부리해수욕장의 넓은 갯벌로 들어갔다. 목적이 바지락은 아니지만 맨손으로 열심히 파도 새끼손톱만한 바지락도 잡히지 않자 김명희 간호사는 무엇인가를 갯벌의 구멍에 뿌렸다. 자세히 보니 소금이다. 조개구멍에 소금을 뿌리면 조개는 바닷물이 들어온 줄로 착각하고 갯벌로 나온다고 한다. 그 말은 분명 조개나 사람, 돌 중에 하나는 착각해야 한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맛소금으로 해야 하는데 굵은 소금으로 해서" 그렇다고 김명희 간호사는 환한 미소로 무마시켰다.

시간이 지나자 기다려도 나올 줄 모르는 바지락 사냥을 포기하고 삼삼오오 해변을 산책하는 식구들과 얼굴에 진흙까지 묻혀가며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갯벌을 파는 식구들로 자연스럽게 나뉘져 나름대로 바닷바람에 몸과 마음을 내맡기며 편안한 하루를 즐겼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하다. 돌잔치에 지친 아기의 수면과 같이 다들 곤한 잠에 빠져있다. 문득, 오늘이 한마음혈액원의 '돌잔치'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돌잡하기'다. 돌을 맞은 아기에게 돌상에 놓여있는 돈, 실, 연필, 공책 중에 아무 것이나 잡게 하여 그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행사가 바로 '돌잡하기'다.

한마음혈액원 식구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고른 '돌잡하기'를 했을까? 그리고 돌잔치의 장소인 제부도(濟扶島)의 의미가 건널 제(濟)와 도울 부(扶), 즉, 건너고 돕는다는 뜻인 것이 우연한 일치일까? **김영민**



갯벌을 다 뒤질 것같은 이진울 기자와 윤규수 부장



소금으로 조개를 유혹하고 있는 김명희, 김명희 간호사